



3면

“국민통합 강조, 이제야알 것 같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음 12월 7일) 제31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의 거쳐 대통령 공포 후 1년 후 법 시행 도,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후속 조치 추진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람

이 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됐으며, 이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 심의를 통과하며, 28일 제4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8일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신영대·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연결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눈앞’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이어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동서도로서 관광레저용지까지 연결 2단계, 내년 7월 준공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十) 도로가 완공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시점부(엑스포 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십자형 도로(2020년)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이 될 남북도로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해 차량통행이 29일부터 가능해 졌다.

28일 새만금 현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신영대·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도로 1단계 12.7km 구간을 버스로 초도 주행을 했다.

남북도로는 전북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을 총 27.1km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새만금 산

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건설 중이며,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 착공 이후 6,010억 원을 투입해 왕복 8차로로 준공했다.

2단계에서는 동서도로에서 농생명용지를 지나 관광레저용지까지 14.4km (6차선)를 연결하는 구간이며, 세계잡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해 6월 국도 4호선으로 지정해 고시한 바 있다.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은 기업유치가 한창인 산업연구용지와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용지를 연결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교차점.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요 기반시설과도 연계된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의 투자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주요 도로와 함께 항만, 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24일 설계비 등 36억 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재공항은 국토부가 올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입철도는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치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해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과 관련된 김관영 도지사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상상속에 그리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남북도로는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로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김재훈 기자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국가지정 ‘보물’ 승격

남원시는 28일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고 밝혔다.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고승인 편운화상에 대한 공양과 추모 등의 의미가 반영된 기념적인 조형물로, 탑신 표면에 ‘창

조흥적제자 안봉창조편운화상부도 정개십년경오세건’이라는 명문을 새겨, 법맥과 주인공, 조성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명문을 해석하면, 개창조인 흥척의 제자이며 안봉사의 개창조인 편운화상의 부도이다. 정개 십년 경오세에 건립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점,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 등이 탁월한 것으로 사료돼 보물로 지정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